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4월 5일(화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협치인권담당관	담 당 자 • 주민자치팀장 한윤덕 ☎440-4111 • 담당자 이환욱 ☎440-4112	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시,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121억 원 지원**  
**- 155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...인천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 -**  
**- 주민참여예산, 운영비, 간사활동비 등 지원 -**

인천시가 2022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.

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올해 총 12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 전년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.

먼저,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,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에 32억 원을 편성했다. 전년보다 17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 운영 중인 137개소 전체 주민자치회에 지원해 주민체감형 사업 발굴을 돕는다.

또한,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회의비·교육비·홍보비 등 운영비에 16억 원을, 주민자치회 핵심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활동비로 11억 원을 지원한다. 주민자치회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

고 자긍심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.

주민자치센터 공간 구조 개선사업에도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해 17개소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개선한다. 이로써 4년간 총 72개소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.

인천시는 인천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난 4년간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왔다.

현재 155개 중 137개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으로, 인천시의 주민자치회전환율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. 올해, 미 운영되고 있는 1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155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.

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“올해에도 실질적인 인천형 주민자치회의 행정·재정적 지원 확대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 자치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할 계획”임을 밝혔다.

<붙임> 2022년도 주민자치활성화 관련 현장사진

## 참고

## 2022년도 주민자치활성화 관련 현장사진



〈주민총회 1〉



〈주민총회 2〉